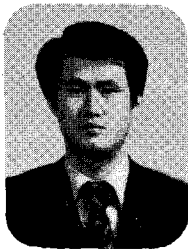

해설 : 배합사료의 가격자율화조치

배합사료 보증성분 다양화로 원하는 사료 골라 쓸 수 있다



김 정 인
(신촌사료 (주) 상무이사)

1. 사료가격 자율화 실시

배합사료의 가격이 7월 1일부터 자율화된다. 종전의 사료가격은 전품목의 배합사료가격이 경제기획원과 협의조정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상 엄하게 규제가 되어 있었다. 가격 규제 조치가 사실 배합사료의 가격인상을 억제하여 양축업자에게 싼 사료를 공급하게 했던 공적은 부인할 수 없겠으나 실제 단위 축산물당 소요되는 사료비가 절약 되었느냐는 데는 일부 품목에서 많은 이론(異論)이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겠다.

금년 2월부터 농수산부에서는 일부 품목 즉 펠렛사료의 가격자유화 및 주문 배합사료의 생산허용등으로 국내 사료업체에 품질 경쟁의 의식을 내리는 등 일부 문호를 개방하였으며 이번 사료가격 자율화조치로 본격적인 품질경쟁이나 가격경쟁 시대로 들어갔다고 보아야겠다. 그러면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양축업자입장에서 간략하게 분석해보고자 한다.

2. 금번 조치의 필요성

첫째로 국제곡류(옥수수 및 대두)가격의 빈번한 변동으로 수시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환율연동제 및 금리의 유동화 실시로 인하여 가격변동 요인이 빈번히 발생하여 가격지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로 가격의 제한 및 성분량 한도설정으로 자율경쟁에 의한 품질개선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경제성 높은 배합사료의 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로, 최고가격지정시의 배합비와 실제 배합비의 상이로 원료의 원활한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넷째로 저효율사료가 필요할 경우에 이의 생산공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3. 추진지침

첫째 금번 자율화조치는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둘째, 사료 성분량 한도고시 대상의 단계적 감축

셋째, 현행 도입옥수수의 안정기준가격 제도를 지속하고 보다 신축성있게 탄력적으로 운영

넷째, 정부관리 양곡부산물 및 민수도입소맥가공부산물의 정부고시 가격은 계속 유지한다.

다섯째, 대두박 어분등 부원료의 공급 가격은 자율화하되 수급물량을 감안한 수입 및 수출조절로 가격안정이 되도록 도모한다.

4. 보완대책

배합사료가격 자율화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의 보완대책으로는 첫째 부당가격 거래방지

주중품목의 기준가격을 세무관서에 통보하고 대리점 및 소매상의 가격을 조사하여 그 결과도 세무관서에 통보하여 폭리를 방지한다.

둘째, 품질관리 강화

사료공장에 대한 일체점검을 실시하고 시도간 검사 공무원의 교환점검 실시등 검사기능을 강화하고 사료검사업무 취급요령등 검사제도를 개선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셋째, 사료공장간의 과다경쟁 예방

사료원료의 배정권을 사료협회 농협등 조절단체에 완전위임하여 업체별 원료배정율의 한도설정등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조절단체의 기능을 강화한다.

5. 앞으로의 전망

이상 대중 살펴본대로 배합사료의 가격자율화는 원칙적인 자유화조치에 양축업자에게 보호망을 한걸 더 쳐준 획기적인 처사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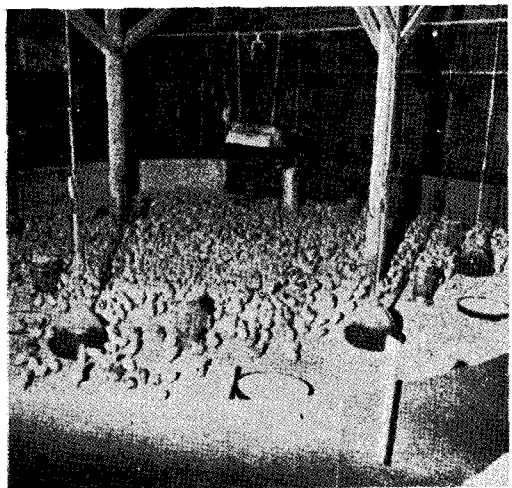
그러나 양축가 입장에서 예견될 수 있는 몇가지의 문제점을 우선 이해하고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먼저 당분간은 배합사료의 구입가격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 주요 사료 원료의 국제가격이 안정세이며 사료생산이 아직 부진하고 최대생산 능력으로 보아 상당한 여유가 있으므로 자율화 이후에도 가격의 등귀나 수급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대미환율이 서서히 오르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약간의 원가상승 요인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종전의 최고가격 지정품목중 일부 배합사료의 가격(특히 큰 병아리용 사료등)이 불합리한 것이 있었으므로 일부 품목의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양축가로서 유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면 배합사료의 제조회사별 선택에 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까지는 배합사료의 보증 성분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유등록제도로 전환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 1〉 계절별 능력별로 본 백색 레그혼종의 조단백질과 에너지 요구량

대사에너지 Kcal / kg	선선할때			따뜻할때			비 고
	단백질요구량	사료량/수/일	사료 / 계란	단백질요구량	사료량/수/일	사료/계란	
2,600	15.0%	117gm	150gm	17.0%	105gm	135gm	산란초기 (78%산란) 한국 조단백질 15.0%이상 M. E. 2,700Kcal이상 (산란개시후~25주)
2,750	16.0	111	142	18.0	100	128	
2,900	17.0	105	135	19.0	95	122	
3,050	18.0	100	128	20.0	90	115	
3,200	19.0	95	122	21.0	86	110	
3,350	20.0	90	115	22.0	82	105	
2,650	13.7	117	163	15.2	105	146	산란중기 (72%산란) 한국 조단백질 14.5%이상 M. E2,600Kcal 이상 (26주~40주)
2,800	14.5	111	155	16.0	100	139	
2,950	15.0	105	146	16.9	95	129	
3,100	16.0	100	139	17.7	90	125	
3,250	16.8	95	129	18.5	86	119	
2,650	13.5	111	180	15.0	100	161	
2,800	14.3	105	170	15.9	95	153	
2,950	15.0	100	161	16.7	90	145	
3,100	15.7	95	153	17.5	86	139	
3,250	16.5	91	146	18.4	82	133	

자료 : NUTRITION of the chicken (scoff)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우선적으로 중 병아리 산란중기 산란말기 종계등의 배합사료를 사료공장 임의로 성분등록을 허용할 것이라 하며 그 성과를 보아서 진품목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까지 산란초기 사료의 경우 어느 공장이나 조단백질은 15%이상, 대사에너지는 2,700KCal 이상으로 확일적으로 보증하여 판매되었으나 앞으로는 A 회사는 조단백질 16%이상 B 회사는 조단백질 14%이상등으로 자유롭게 성분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보증성분 여하에 따라서 큰 가격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의 경우 산란을 기후 및 원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하여 배합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렇게 제품이 다양화되어 양축가들이 원하는 공장의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은 원료 절약이나 축산물 생산비의 절감등으로 볼 때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반면에 양축가는 항상 사료의 품질, 계란 1개당 육계 1kg 당 소요되는 사료비를 항상 계산하여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사료공장간의 과당경쟁이 품질저하 판매가격 덩핑등의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각 사료회사간에 연구 및 개발비를 개발비를 많이 투자하고 학제등과 긴밀한 협조를 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나 개인 양축가의 수익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주기를 바라고 싶다.